2014. 2. 16. SUN 15:00~18:00

@스페이스노아

제2회 청년녹색당 정기총회

15:20 현재 정족수: 24

1. 총회준비과정 인준

24/24로 통과됨

2. 내규 개정

2-1. 설명: 전형우

질문1: 운영위원 선출이 선거제로 바뀌는지? 전국녹색당이 추첨제인 것에 대한 생각은?

답: 그렇다. 전국녹색당은 대의원만 추첨이고, 공동위원과 지역 대표의 경우 선거로 선출한다.

질문2: 제 20조 해산에 관하여, 해산사유가 당원 총투표 1/3의 성원을 받아 그 중 3/2를 넘을 경우라 써있는데, 알기로는 청년녹색당이 1019명인데 그 중 450명 정도의 투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답: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

질문3: 해산에 관하여, 최소 200여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너무 적지 않은가?

답: 그렇다. 200명이라는 숫자가 쉽지만은 않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다.

질문4: 멤버십 여러 곳에 가입이 가능한데, 10명 이상을 계산하는 명단에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답: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

질문5-1: 운영위원 8명 선출방식은? 책임성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원하는 사람 중에 추첨을 하면 되지 않나?

질문5-2: 성비례로 인해 남, 여 1인씩 뽑는 등 녹색당이 비례원칙을 최대한 만족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위험성만 최대한 제거할 수 있다면 추첨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방식이 충분치 않은 까닭은, 운영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지금까지의 활동경력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로 책임성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안1: 질의응답과 안건토론이 혼재된다.

질문6: 1장 총칙에 대해, 규약의 내용을 줄인 이유?

답: 총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만이 담기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질문7: 당명은 아직?

답: 그렇다.

제안2: 선언문 형태도 좋다고 본다.

첨언1: 전국녹색당의 청년녹색당 조직담당자를 상근자로 뽑을 것이 확정된 바는 아니고, 추가논의를 통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답: 운영위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면 될 듯하다.

질문8: 녹색당과의 미래 관계 설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녹색당 당규가 청년녹색당 당규보다 상위인가?

답: 청년녹색당은 녹색당의 당원모임이라 명시되어있으므로 녹색당 당규를 따라야 할 것 같다.

질문9: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장이 전국녹색당 운영위원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라면, 운영회의를 할 때 참여인수는 공동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포함하지 않는다. 미흡한 부분이라 보충이 필요하다.

질문10: 11조 4항의 설명을 부탁한다.

답: 운영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것이다. 6명 이상이 출마했을 경우, 득표순으로 당선인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논의에 따른 보충이 필요하다.

질문 11: 이 향후 의사진행에 관해, 조별로 토론과 통과를 진행하나?

답: 문제될 안건에 관해 전체 토의를 하고, 통과도 한꺼번에 현장에서 진행한다. 세부적 찬반투표 후에 전체투표로 통과시킨다.

질문 12: 추첨제의 경우도 여기에서 통과하는가?

답: 그렇다.

질문13: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모든 당원에 공지가 됐는가? 여기에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는가?

답: 위임장 포함하여 대표성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변경내용은 추후 당원들에 통보될 예정이다.

3. 토론

1. 11조 1항의 전국위원 인원수에서 ‘내외’라는 표현이 모호한데, 전국위원의 최대숫자를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 최대 6명의 최소 수준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3. 인원수를 확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4. 규약상 오류가 있다. 본래는 운영위원 최대 8명을 선출하고, 그 안에서 남,여 1인씩 운영위원장을 뽑는 것이다. 전국운영위에는 운영위원장 2명+ 운영위원 중 2명이 가게 된다.
5. 모자랄 경우에 관한 규약은? – 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한다.
6. 5)의 대답이 규약과 어긋나지 않은가? – 원래 운영위원이 선출이 아니었는데, 선출을 통해 기존과 다르게 책임성이 더해진 회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7. 14조 3항에 관해, 청년당원의 자율적 참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8. 14조 4항의 ‘운영위원 1/3출석’을 ‘과반수’로 고쳐야 하지 않은가?
9. 1인당 3개의 모임에 이름을 올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 지역, 학교, 의제모임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3개의 모임에 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결정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 논의의 필요가 있다.
10. 모임의 인원수 등은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1. 선출된 전국위원과 운영위원 겸직이 가능한가? – 가능할 수 있지만, 출석수로는 1명으로 반영될 것이다.
12. 의결권의 차원에서, 겸직이 무의미할 것 같다.
13. 6조 2항은 변경후 무의미해졌으니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 논의가 필요하다.
1. 오늘 총회에는 지역 등 각 모임의 대표들도 위원 출마가 가능한가?
2. 성비원칙의 경우, 그 전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이제는 의미를 살리되, 제약을 줄이자는 차원이다. – 원칙은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3. 6조 2항은 청년녹색당의 지향을 명시한다지만, 적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논의 또한 수반돼야 한다.

 17) 특정인의 공적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를 시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것 같다. –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더 크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참여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 운영위원장은 몰라도, 운영위원은 지역모임에서도 참여하려 할 수 있는데, 꼭 선거를 해야 하는가? – 지역모임에서 합의만 된다면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18) 청년녹색당 자동가입에 관해, 당연가입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19) 추첨의 폐해가 크다. 추첨과 선거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6:35 현재 정족수: 32

의결사항:

운영위원 추첨

4/32 부결

운영위원장 선출을 추첨

11/32 부결

16:55 현재 정족수: 29

1. ~~11조 전국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최대 8명으로 수정~~

13/29

~~.. 최소인원 규정+최대인원 규정~~

~~16/29~~

~~.. 인원수를 일정 인원으로 명시~~

최소인원이 3명으로 규정되면, 매번 선출시 3명 가까이 밖에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구체적인 논의는 세칙으로써 차기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건상정한다.

17:18 현재 정족수: 33

재투표 여부: 18/33 가결

1. 최대 8명

23/33 가결

최소인원 만큼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추천기간을 연장한다.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원규정을 결정한다.

17:22 현재 정족수: 28

1. 14조 3항 ‘자율적 참여’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위임, 일반회원의 참관과 발언권 허용

18/28

 ~~.. 이 자리에서 결정~~

17:26 현재 정족수:27

1. .. 4항 운영위원 1/3를 과반수로 변경

23/27

----------(서기 교체)

1. 17조 4항 ‘3개의 모임’까지 등록가능, 3개는 많다

수정안1) 10개는 너무 많으므로 줄이는으로.

(줄이는 수정안은 부결)

수정안2) 운영위원회 확인후 승인 (통과)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대표 겸직시 의결권은 1인 1표

1. 6조 (총 29명)

수정안1. 조항 삭제 (3)

수정안2. 이 조항을 근거로 세칙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용어 정의, 구제방안 등 ( 19명) – 통과

예 ) 소수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모임은 10명 미만이더라도 모임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가? 운영위원회에는 세칙 결정권이 없고 해석권만 존재. 세칙은 운영위원회가 다시 총회에 올려야 함.

- 아님.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규약에 나와있음.

1. 당원 자동가입을 폐지한다.

(추가안건:

* 탈퇴조항을 2장으로 이동하자는 안건 : 29명 중 24명 (통과))
* ~~수정안 1. : 청년녹색당원은 35세 이하의 녹색당원 중 당원가입에 동의한 당원으로 한다. (철회)~~
* 수정안 2. : 운영위에서 이 사항을 논의하여, 향후에 토론을 하는 것으로 가져간다. ( 29명 중 28표 – 통과)

- 이 조항은 영향이 매우 큰 조항입니다.

- 녹색당은 연합주의로 이루어진 연합조직. 청록당과 지역당도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 정당법 상으로 청년녹색당은 하위조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규약일 뿐이죠. 하부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강령에 위배됩니다.

-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 너무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되고 결정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와 당원들이 다시 준비해서(토론회 등) 다시 총회에 상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안건3> 운영위원 선출의 건

1. 선관위 선출

* 선관위 선출 하겠습니다. 선관위 자원해주세요
* 여린두발님이, 정재호님 자원하셨습니다.
* 여린두발 : 동대문구 여린두발입니다.
* 정재호 : 종로녹색당 정재호입니다.
* 김우영 입니다.
* 박수로 동의!

2. 운영위원 선출 : 현장에서 자원과 추천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 유세화 당원 자원하셨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먼저 가셨습니다.

- 부천녹색당 전요은입니다. 저… 운영위원 할래요… (박수)

- 김준태 당원도 추천합니다. – 수락하겠습니다.

- 김여원 당원도 추천합니다. – 수락하겠습니다.

- 김의신 당원도 추천합니다. – 수락하겠습니다.

- 유선우 당원 추천합니다 – 상벌위원회 겸직이 불가합니다.ㅠ

후보 : 민철식 이환희 진달래 이도연 전형우 / 유세화 전요은 김준태 김여원 김의신

* 진달래 : 인천 녹색당일에 집중해오다가 대학원 생활하게 되면서 청년 녹색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겠다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형우 : 성북구, 학생. 총회 준비를 도와 처음 녹색당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청년분들이 많은데, 그런 열의가 넘치는 청년분들이 아닌 청년들의 평범한 사람들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만들겠습니다.
* 유세화 당원 소개 (정형우 대신), 추첨제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 자퇴 후 다시 대학을 다니는 중. 학교에서 환경동아리 운영 중.
* 이환희 : 마포 당원. 생태주의와 정치를 함께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공간이 없다는 아쉬움에서 청년 녹색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준태 : 청년녹색당에서 힘든 일인데, 잇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직이라 힘을 좀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서…
* 김여원 : 서대문. 첫 발족 때부터 참여해왔구요, 참여 하면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운영위원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평범한 당원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 전요은 : 부천. 오늘 청년 녹색당이 새로 다시 출발하는 날이죠. 이런 새로운 출발에서 선관위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을 상상해보니 머리 속이 새하얗고 눈앞이 깜깜하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질을 해보자면, 약골이라 골골대는데 이번에 총회 준비 위원을 맡아서 끝까지 해냈습니다.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 민철식 : 작년 청년녹색당 태풍시기에 임시 운영위원이었고, 열심히 하려 했으나 잘 하지 못했고, 기회를 다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도연 : 전북. 녹색당 창당 때 가입했지만 활동에는 소홀히 하다가 총회 준비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소홀히 했었던 죄책감과 잘 하고 싶다는 책임감으로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의신 : 저는 1~2년 넘게 해외에 있다와서 활동은 거의 못했구요, 마음은 항상 있엇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좋고, 최선을 다해 맡은 것을 하겠습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내년에 가게 되면 임기가?
* 가능합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찬/반/기

 민철식 12/11/3

 이환희 26/0/0

 전형우 26/0/0

 진달래 23/3/0

 전요은 22/2/2

 김준태 21/3/2

 김여원 20/5/1

 유세화 19/6/1

 김의신 21/3/2

이도연, 이환희 전형우, 진달래, 전요은, 김준태, 김여원, 김의신 당선

<안건4> 운영위원장 선출

* 이환희 전형우 추천
* 전형우 사퇴
* 진달래 이도연 추천
* 이도연
* 김의신 추천
* 김의신 사퇴
* 전요은 추천
* 김여원 추천
* 김여원 사퇴

최종 후보 :: 여 : 진달래 남 : 이환희 전요은

 - 남자후보 이름과 여자후보 찬반여부 투표용지에 적어 투표